

왕의 , 미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과 전략 소통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판공실 주임인 왕의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과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북경에서 새로운 한차례 전략적 소통을 갖고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토론을 했다.

왕의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미 관계가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려면 량국 정상이 항해의 키를 잡아야 한다. 중미 량국이 충돌과 대결을 피함에 있어서 관건은 3개의 공동공보를 준수하는 것이다. 중미간 령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건은 서로 평등하

게 대하는 것이다. 중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더 멀리 나아가는 관건은 민심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건은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왕의는 중공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이정표이며 각국의 공동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왕의는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리행하고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압제

하는 것을 멈춰야 하며 필리핀의 침권 행위를 지지하거나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대만독립', '두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 목표는 미중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표했다.

량측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및 조선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량측은 량국 정상이 최근 새로운 상호 관계를 전개할 데 대해 토론했는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중미 정상 회담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계속 리행하여 고위급 교류와 각급 소통을 유지하며 마약 금지, 법 집행 및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량국 군사 및 전구(战区) 지도자간 화상 통화, 제2차 중미 인공지능 관련 정부 대화 등 제도적 배치를 적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로켓포 무기시스템 검수시험발사 참관

조선중앙통신의 8월 28일 보도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8월 27일 조선제2경제위원회 소속 여러 군수산업 기업에서 생산한 240밀리미터 로켓포 무기시스템의 검수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로켓포 무기시스템은 기동성과 타격 능력 면에서 기술 갱신을 실현했다. 당일 검수 시험발사는 새로 채용한 로켓포유도 시스템 및 해당 무기시스템의 조작 통제성과 파괴력 등 제반 지표의 우월성을 증명했다.

메히코 : 미국 대사관과의 관계 '잠시 중지'

메히코 주재 미국 대사 살라즈르가 일전에 메히코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발표한 언론에 대응하여 메히코는 메히코 주재 미국대사관과의 관계를 '잠시 중지'했다고 메히코 대통령 로페스가 8월 27일 수도 메히코시에서 말했다.

로페스는 당일 정례 소식공개회에서 살라즈르가 일전 메히코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조치를 '민주제도를 위협'하고 '북미 경제 일체화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페스는 살라즈르의 관련 언행은 '경솔'할 뿐만 아니라 '유감'스럽다며 이는 아메리카주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간섭주의 정책'을 구현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로페스는 메히코 측은 미국정부와의 쌍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라즈르는 8월 22일 소식공개회에서 메히코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조치가 '민주제도를 위협'하고 '북미 경제 일체화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페스는 살라즈르의 관련 언행은 '경솔'할 뿐만 아니라 '유감'스럽다며 이는 아메리카주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간섭주의 정책'을 구현했다고 지적했다.

알리페이 , 한국어 등 16 개 언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이 알리페이로 돈을 지불하고 있다. / 자료사진

알리페이(支付宝)가 최근 16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관광객이 중국에서 더욱 원활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리페이 스마트폰 앱(APP)은 기존 중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에스파냐어·포르투갈어·아랍어·로씨아어·토이기에어·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타이어·한국어·일본어·월남어 등 다중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원하는 언어로 앱의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알리페이의 올 상반기 입경 여행객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8배 증가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서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중국 기업의 수는 연간 300% 급증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하루 평균 소비액은 3,459 원으로 조사됐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올 1월-7월 중국을 찾은 외국인인 1,725 만명(연인원)에 달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9.9% 확대된 수치라고 전했다.

보잉 : 중국 향후 항공기 8,485 대 증가



란주 중천국제공항 3기 확장 공사 주체공사가 7월 31일 준공되었다.

/ 신화넷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중국 민간항공 시장과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놴다.

8월 27일, 보잉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민항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2년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중국 시장의 신규 민항기 수요량을 8,485 대로 예측했다. 이는 시장가치 약 1조 5,000억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여기에는 여객기와 화물기가 모두 포함됐다.

보잉은 향후 20년 동안 전세계 신규 민항기 인도량의 5분의 1 이상이

중국 민항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잉은 또 여행 및 화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당 기간 중국의 민항기 보유 대수는 무려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중국 항공 화물 시장 역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41년 중국의 화물기 보유 대수가 800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화넷

미국,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 감염 병례 발견

미국 매체의 8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8월 중순에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 감염 병례 한건이 보고된 데 이어 근일 또 한건의 병례가 보고되어 현지 위생 부문과 공중들이 보기 드물지만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이 전염병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동부 말 뇌염은 일종 급성 뇌염이다. 전에 북아메리카 동부에서 류행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데 모기에 물려 감염된 사람과 말은 동부 말 뇌염에 걸린다. 급성 뇌염으로서 환자는 흔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모기에 물리면 사를 내지 열을 안으로 열이 나고 경부가 뻣뻣하며 머리가 아프고 힘이 없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은 감염된 후 사망률이 33%에서 70% 사이이며 대다수의 사망은 증상이 생겨서 이를 내지 열을 사이에 발생한다.

8월 중순, 매사추세츠주 공공위생부문은 이 주의 80여세 되는 남성 한명이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20년 이래 이 주에서 발견한 첫번째 인류 확진 병례이다. 이어서 8월 23일, 매사추세츠주 공공위생부문은 이 주의 플리머스현에서 또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 감염 병례 하나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플리머스현 중심도시는 23일부터 저녁 무렵에서 새벽까지의 시간에 공원과 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문을 닫는다고 선포했다. 플리머스현 공공위생 부문은 학교, 공원, 체육장 등 곳에 모기퇴치제를 분무할 것이라고 표함과 동시에 공중들에 화원과 못 등의 고인 물을 말끔히 없애고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모기 예방 조치를 잘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공공위생부문은 말을 사랑하는 집들에서 밤에 말을 마구간에 가두어 말들이 모기와 접촉하는 위험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매사추세츠주 공공위생부문의 소개에 의하면 1938년 이래 이 주에서는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 감염 병례가 도합 100여건 보고되었다. 그중 약 절반의 확진자가 사망했으며 생존자의 경우 흔히 중신장애가 컸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환자는 극소수 밖에 안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중심 사이트에 오른 수지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올해 이미 3건의 해당 병례가 보고되었는데 각기 매사추세츠주, 뉴저지주, 버몬트주에서 발견됐다.

/ 신화넷

중국 , 유럽 ‘소도시 몰입형 관광’ 선호

올여름 유럽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중 숨겨진 관광지에서 한적하고 몰입감 있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아드리아해를 끼고 있는 크로아찌아는 중국인 관광객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크로아찌아 관광청 기업전파부 주임 크리스티나 마믹은 8월 21일 기준 크로아찌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9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고 전했다.

크로아찌아 남부의 주요 관광지인 두브로브니크, 수도 자그레브, 두번째로 큰 도시인 스플리트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마믹은 관광객수가 아직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증가세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피력했다.

알바니아 역시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이다. 알바니아 관광청에 따르면 올 1월-7월 1만 3,000명의 중국인이 알바니아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6% 늘어난 수치이다.

속도감 있는 관광이 선호됐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몰입감 높은 관광이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더 환영받고 있으며 선호 관광지 역시 달라졌다.

‘화란의 베니스로 불리는 양각촌(羊角村)은 고요한 수로를 끼고 있는 그림같은 풍경을 자랑하는데 많은 중국인이 이곳에 장기간 머물며 문화적인 몰입을 경험하고 있다. 뫼즈(默兹)강변의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자 색스폰의 탄생지인 벨지끄의 디낭(迪南)도 마찬가지다.

화란 관광국 홍보대사이자 양각촌촌장인 브리엘라는 중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자유여행을 선택해 관광지에서 더 오래동안 머무르며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 같은 시장 성장에 대응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디낭은 중국어 표지판을 마련하고 중국 인기 여행 플랫폼에서 존재감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디낭 중국거리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의 주인은 최근 수년간 디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화란 관광국 홍보대사이자 양각촌촌장인 브리엘라가 양각촌의 한 운하 강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23년 12월 3일 찍음)

/ 신화넷

체스코의 경우 올해 중국인 관광객 직항편 운항 재개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수가 125.7% 늘었다. 북경-쁘라하

직항편 운항 재개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이다.



‘화란의 베니스’로 불리는 양각촌

/ 자료사진